



안나씨, 왜 남극에 인가요?



신년 시절 꿈을 찾아서죠

남극 세종과학기지 전경 <극지연구소 제공>

“눈부시게 푸른 빙벽을 가까이서 보고싶었다”

인나의 남극통신
(1) 설레는 폰타아레나스

왜 남극에 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받았다. 이제는 왜 남극에 가고 싶었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같은 걸 묻고 있는 듯 하지만 잘 살펴보면 다르다. 정말로 남극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듣는 질문은 ‘왜’이라는 음절 하나로 나를 들쭉이게 한다.

1994년 9월, 화순으로 이사를 갔다. 전학가지 않고 계속 광주로 통학했다. 126번 버스를 타고 ‘강석, 김혜영의 싱글빙글쇼’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학동을 거쳐 이십곡리를 지나면 저수지가 있다. 그 때는 차이코프스키의 비장미에 반해서 그 저수지를 백조의 호수라고 불렀다.

내겐 ‘모름’이 ‘수치’(羞恥)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으로 인식됐다. 모르는 게 많으면 세상이 아주 재미있다. 어렸을 때 나는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고 성질이 급했다. 가장 빨리 세계와 만나는 방식으로 방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는 것을 택했다. 선비 같은 의젓함을 없앴다. 급세 나가서 사투비어 꽃을 훔으며 꿀을 빨아 먹다가 개미를 먹기도 하고 그 개미를 툴툴 뱉기도 하고 평행봉에 오후 내내 매달려 있기도 했다.

집에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있었다. 아득한 색과 저곳 물의 색이 다르고 이곳 흙의 입자와 저곳 흙의 입자가 다르다는 게 재미있었다. 그 중에 백령도 물범이나 갑자카 반도 사진만큼 남극 사진이 마음을 끌었다. 온통 하얗고 하나도 시시한 게 없었다. 레이아웃도 멋이 있었다. 그리고 난(蘭) 그림의 여백처럼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운석이 떨어지면 망설임 없이 아저건 운석이구나 알아볼 것 같은 깨닫기가 있었다. 나는 남극에 매료되었다.

동경과 수직 수준을 벗어나 실제로 월동대원(생물연구원)이 되기 위해 준비한 건 2012년 여름, 세종기지 19차 월동대 의료담당이었던 고경남 대원의 책을 읽고 나서였다. ‘가까이에서 푸른 빙벽을 보고 나면 다른 어떤 걸 보더라도 감탄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문장을 읽고 그 빙벽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월동대원이 되어서 남극에 1년 동안 있고 싶었다.



압도적인 웅장함을 자랑하는 남극 마리안소만의 빙벽은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다.

<극지연구소 제공>

초등학교 때 집에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있었다 온통 하얗고 시시한 게 없는 남극 사진에 매료되었다

월동대원으로 선발되려면 남극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했다. 석사과정 중이었고 논문을 쓰려던 참이었다. 남극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다. 학위 논문을 행복한 남극월동 디자인(Happy Wintering Design in Antarctica)에 대해서 쓰기로 하였다.

실제로 남극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의 방식을 제안하는 건 엄청나게 무모한 도전이고 순진한 추측이 될 수 있다. 나는 구체성을 확보하고 결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었다. 남극에 다녀온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다. 영어도 일어도 서툴렀기 때문에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녔다. 그림으로 설명한 적

도 많다. 남극에 다녀온 분들을 만나러 갈 때면 그곳이 어디든 발이 잘 떨어졌다.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처음에는 남극의 풍광에 압도되어 경탄하게 되지만 금세 지루해진다. 퇴근 후에도 같은 곳에서 매일 똑같은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다 보니 별 거 아닌 일로도 반목이 생긴다. 해도 잘 안 뜨고 날씨가 나빠지면 좁은 실내에서 며칠씩 머물게 된다. 야심찬 계획을 세워갔지만 제약이 많아 어느 순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월동대는 약 400일을 남극에서 머문다. 나는 남극에서 시간과 공간을 쓰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정말 유효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돌아온 사람에게 남극은 그리운 곳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남극에 갈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 폰의 이름은 처음부터 Antarctica Signal Receptor(남극신호수용체)였고, 액정이 깨져서 다시 산 폰의 이름은 Antarctica Signal Receiver(남극신호수신기)였다. 와이파이 신호가 뜨면 그게 내 것인 줄 알면서도 ‘Antarctica’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도 이렇게 좋아해본 적이 없었다.

남극은 분명 압도적인 곳이지만 압도의 지속

생물연구원 400일간 생활 세종기지 월동대원들과 농작물 수경재배하고 요리하며 기쁜 정서 많이 나누고 싶어

성은 길지 않다. 여전히 남극은 위험한 곳이지만 세종기지는 여러 사람의 노력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래 전에는 남극에서의 ‘생존’이 화두였지만 이제는 남극에서의 ‘생활’이 화두이다. 나부터가 지루함을 잘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생활할 방법을 고민해 보고 싶다.

내가 하려는 디자인은 단발성 이벤트의 나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벤트는 사진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반복되면서 예측이 되어 쉽게 질리고 저마다의 가슴에 오래 남지 않는다. 월동 중 개인의 스트레스가 빠져나갈 출구를 고민해 보고 싶다. 영화관이나 비행기에서 비상구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어딘가에 갔을 때 그곳에 출구가 있다는 건 사람에게 엄청난



- 안나씨 약력
- ▲ 1986년 광주 출생
- ▲ 전대사대부고 졸업
- ▲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졸업(부전공 철학)
- ▲ 도쿄대 정보이공학계 연구생
- ▲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졸업
- ▲ 남극세종과학기지 28차 월동대 생물연구원

안정감을 준다.

칠레의 최남단 도시 폰타아레나스에서 남극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대원들과 출구를 함께 고민해 보았다. 재밌는 아이디어 몇 개를 소개해보지만 다음과 같다. 세종기지는 농작물 수경재배시설인 ‘식물공장’이 있다. 이 공장의 한 칸씩을 분양받아 각자 자신이 키운 작물로 요리를 하고 작물재배상대 및 요리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 식사시간에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 생일을 맞은 대원에게 다른 대원들이 삼행시를 지어서 헌정하는 것,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모래시계를 놓고 제한된 1분 동안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등이다.

이런 저런 방법을 써도 이따금씩 출구 없음에 갇힌 때가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옆 사람의 짓가락 쓰는 소리도, 잘 잤냐는 동료의 인사도 귀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쓰는 글에 그런 감정이 묻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 년 동안 기지에서 지내다 보면 누군가와 불편해질 수 있다고 각오하고 있다. 갈등도 생겨날 것이다. 사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하면 해소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그의 안색과 체온을 살피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나는 돈이 좋다. 돈은 명백하다. 세종기지에서 현금처럼 확실하고 기쁜 정서를 많이 겪고 싶다. 28차 대원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다.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2일째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포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필)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3일째	선박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몽골리안 마상쇼(현지직필) 포항사항 : 선박및항공료, 현지차량료, 일행내의입점료, 숙박비, 여행자보험 불포항사항 : 옵션(현지직필), 기사, 가이드비 1인 ₩10,000원 * 동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불예약) 1인 ₩20,000원	조식 : 호텔식 중식 :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 : 자유식

※ 참가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상품은주중제외입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악회 별도모의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항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등),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항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주차비, 식사(중식2회, 석식회, 조식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악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어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시 : 문명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명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